정체(正體) 모를 그 여인(女人)

차(車)중이나 선(船)중에서 얻은 로맨스를 써 달라는 청탁이나, 나에게는 차중이나 선중에서 얻은 이렇다 할 로맨스가 없다. 그러나 차중이나 선중에서 얻은 로맨스란 무슨 복잡한 사건의 전개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차나 기선 속에서 안타깝게 끝나고 마는 단순한, 그러나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그런 로맨스일 것이다.

그리고 로맨스란 결국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얽혀지는 한때의 꿈인지라, 그것을 회상(回想)할 때에 그 가장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남자이면 그 상대되었던 여자, 여자이면 그 상대되었던 남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기차나 기선 속에서 얻은 로맨스를 쓰라는 말은 기차나 기선 속에서 만나 잠깐 동안 나와의 사이에 정신적 교섭이 있었던, 그리하여 그 후로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쓰라는 말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기차 속에서 만났던 여인으로 지금까지도 아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다.

지금부터 6, 7년 전 어느 해 봄, 내가 귀향했다 다시 교토로 갈때의 일이다. 낭하토[氷同]에서 시모노세키[下關]까지 갈 동안에 나는 한 사람의 말동무도 얻지를 못해서 무료하기 짝이 없었는지라 시모노세키에서 차에 오를 때에는 누구든지 말동무가 될 만한 사람의 옆에 가 앉으려고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칸 저칸으로 찾아다니던 끝에 나는 웬 젊은 여자의 앞에 자리를 정하고 앉았다.

「대체 이 여자는 나이가 몇이나 될까? 스물 일곱이나 여덟일까? 그래서는 나와 비교해서 너무나 많다. 그러면 나보다 두 살 위인 스물 넷? 한 살 위인 스물 셋? 동갑?」

이렇게 나 혼자 한참 바쁘게 나이를 추정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자기의 앞에 앉아 있는 나의 존재조차 의식치 않은 것처럼 눈 한번 보내는 법 없이 그저 먼 산만 한참 동안 바라보고 앉았더니 소매에서 담배를 꺼내서 피우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고 나는 이 여자의 나이보다 그 정체가 더욱 알고 싶어졌다.

「대체 무엇하는 여자일까. 카페 여급일까? 그러나 그 얼굴이나 몸맵시에 어디인지 귀족적인 품이 있다. 그러면 어느 귀족이나 부호의 영양(令嬢)일까? 그러나 그 얼굴에는 아무런 근심과 고생 없이 커난 사람에게 보는 그런 애띤 곳이 없고 어디인지 오랜 고생에서 온 검은 자취가 깃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우울한 표정으로 보아서 사랑하는 남편을 여의고 쓸쓸해 못견디어서 정처없이 여행을 떠난 미망인일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남편의 추억을 아로새기며 그것을 도리어 즐기는 그런 침통한 빛이 없다.

그러면 어느 부호의 소첩일까? 옳다. 그럴는지도 모른다. 저 입가에 떠도는 자조하는 듯한 빛을 보아라. 그리고 간고(干苦)에 풀리지 않을 저 이에 깃들이고 있는 우울과 세상을 멸시하는 듯한 저 싸늘한 눈을 보아라. 아마도 이 여자는 할 수 없는 사정으로, 말하자면 자기 한몸을 희생하여 부모나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또는 어떤 맺히고 맺힌 의리에 못이겨 양심을 굽히고 뜻에 없이 어느 부호의 소첩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 여자는 실연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

하여 그 슬픔을 영원히 잊어 버리려고 어디 죽을 장소를 찾아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두어 시간이나 나 혼자 부질없는 추측을 하고 있을 동안 그는 조금도 쉬지 않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머리를 들어 차창을 내어다 보기도 하였으나 대개는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여자와 말을 붙여 그 정체를 알아내어 보고 싶었으나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처럼 굳게 닫힌 그 입술과 우울이 호수물처럼 담겨 있는 그 두 눈을 보고는 그럴 용기가 조금도 나지를 않았다.

이러는 동안에 차는 벌써 히로시마[廣島]를 지났다. 이 여자가 다음 정차장에서라도 내려 버리면 어쩌나 하고 생각할 때 나는 더욱더 초조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그에게 먼저 말을 붙일 용기가 나지 않는지라 마음을 바깥 경치로나 보내어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세도[瀨戶] 내해(內海)의 파란 물을 보고는 「이 여자의 수심도 저렇게 푸르려니」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들어 도리어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자 나의 시선은 새파란 잎새 속에서 아담스리 내어다 보고 있는 노란 밀감으로 끌렸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에는 찔레잎이 반만 피고 양지쪽 잔디가 조금씩 푸르러 올라올 뿐이었는데 이곳에는 밀감이 한창 익어가는 것이다. 얼마 동안 밀감나무에서 흐르는 남국정조를 즐기고 있다가 나는 갑자기 이 남국정조를 씹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열차가 그 다음 정차장에 도착하였을 때 밀감장사를 불렀다. 나는 밀감을 한 꾸러미를 받아 들고 돈을 내주었으나 장사 사람은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고 게다가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할 수 없이 밀감을 창 밑으로 도로 내어 주려고 할 때 내 앞에

앉은 그 여자가,

「내게 잔돈이 있어요.」

하면서 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창밖으로 돈을 던져주었다.

그는 내가 치사하려는 것을 막으면서,

「창밖에 내어다 보이는 나무에 매달린 밀감이 어찌 그리 고와요!」

하면서 웃음이 그곳을 떠난 지가 태곳적같이 생각되던 두 입술에서 엷은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밀감을 먹을 때 그 미소는 더욱 생생하여졌다.

이에 나는 그에게 차차 말을 건네어 볼 용기를 얻었다.

「실례 말씀입니다마는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이 물음에 그는 얼마 동안 어물어물하더니 고향이 어디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저—오사카[大阪]까지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디 여행을 갔다 오시는 길이십니까?」

「네—가고시마[鹿兒島]까지 봄맞이 갔다 오는 길이여요. 호호호. 봄이 가까워 오면 저 남쪽에서 봄이 걸어오는 것 같애서요. 2, 3년을 두고 이른 봄만 되면 가고시마까지 갔다 차차 봄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와요.」

나의 여자에게 대한 호기심은 더욱더 깊어갔다. 그래서 이 여자가 혹 죽음을 그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나 않은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아소산(阿蘇山) 구경도 하시고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다.

「빨간 불길을 토하는 아소상의 분화구를 보고도 싶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를 올라가면 내가 따라오던 봄을 놓칠까 두려워서, 그러나 한두 번만 이 봄을 즐기고는 아소상에 올라가겠어요.」

이 말을 하고는 그가 갑자기 또 침울해지며 담배를 하나 새로 꺼내

물었다. 그는 그 한 개를 다 태우고 나서는 내가 다시 그에게 건넬 말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자기가 또 먼저 말을 걸었다.

「참, 담배를 안 자시는 모양이시군요. 그런데 여자가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그렇지만 수심 많은 사람에게는 담배가 누구보다도 정다운 동무가 되어요. 선생도 인제 진애(眞愛)를 하시고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게 되실걸요. 호호.」

한 번 자지러지게 웃고는 너무나 실없는 것을 뉘우치는 것처럼 또 다시 정색을 하고 침울해졌다.

이윽고 차가 오사카에 닿았다. 나는 그의 트렁크를 들고 플랫폼까지 따라 내려가서 작별을 하였다.

「오사카에 놀러오거든 들르셔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주소를 가르쳐 주려고도 않았으며, 나도 또한 그것을 물으려고도 않았다.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가는 동안에 그가 남기고 간 수없는 담배꽁초를 발끝으로 비비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의 나이가 적어도 서른아홉 살은 되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리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광》, 2권 6호., 1936. 6. 1)